

“호남-정부간 통로역할 충실”

한나라 역대 최대 득표를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서는 역대 최대의 득표율을 올리는 선전을 펼쳤다.

정 후보는 3일 오전에 끝난 지방선거 개표 결과, 1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56.7%)와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14.5%)에 이어 3위에 그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성적을 올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1995년 전신이었던 민주당의 김동환 후보가 제1대 동시지방선거에 나서 10.1%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1998년 2대 지방선거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또 2002년 제3대 지방선거에는 한나라당 이름으로 이현의 후보가 나왔으나 역시 10.8%의 득표율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당시 정세에는 이 같은 성적도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았었다.

이어 2006년에는 한영 후보가 나왔으나 3.9%의 득표에 그쳐며 치욕의 패배를 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정 후보의 15%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획기적인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에서는 “정 후보의 인품론이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정 후보의 진정성을 유권자들이 인정해준 결과”로 평가했다.

정 후보는 3일 김대식 후보와 기자회견을 갖고 “두 자릿수 지지도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넨다”며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지역발전 공약을 실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며 “호남과 정부 여당 간의 통로역할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에 각각 출마해 고배를 마신 한나라당 김대식(왼쪽)후보와 정용화 후보가 3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전 서로 포옹하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열매 거둘 때까지 도전”

두자릿수 득표를 김대식 한나라 전남지사 후보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는 2~3일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철용성 같았던 두자릿수 득표율을 돌파한 것이다.

김 후보는 6·2 지방선거 최종 개표 결과, 13.4%(12만3500표)의 득표율을 올렸다. 지난 3월 4일 출마 선언 당시 그의 지지율이 0.5%였던 만큼 3개월여 만에 놀랄만한 수확을 거둔 것이다.

두자릿수 득표율은 지난 1995년 민주당 시절, 전석홍 전 전남지사가 기록한 적은 있으나 한나라당 소속 전남지사 후보로는 첫 기록이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선전은 한나라당 후보에게 체면을 지킬만한 표를 보내줌으로써 전남 발전을 위해 일해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현 대통령의 최측근일 뿐 아니라 애항심을 지켜온 김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즉, 전남도민의 ‘전략적인 투표’의 결과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민이 저에게 보내주신 두 자릿수 득표는 저를 전남 발전의 심부름꾼으로 키워보자는 의지와 희망이 담긴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국회를 설득해 전남이 필요로 하는 실적을 쟁겨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이제 전남에 써를 뿌린 것에 불과하다”며 “열매를 거둘 때까지 전남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선거에도 전남지사에게 도전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다.

김 후보는 3일 오전 11시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해단식을 갖고 지방선거 결과를 정리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참패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불모지란 호남에서 소기 목적을 달성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이색 당선자

여론조사 35%P차 뒤집은 김충석 여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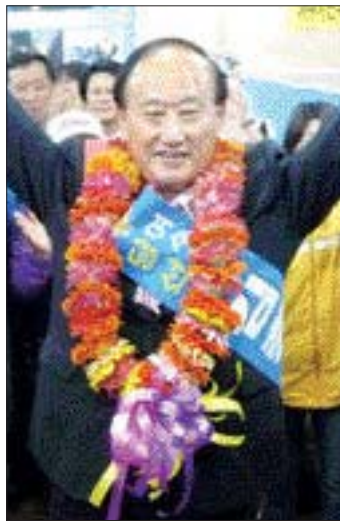
“이번 쾌거는 30만 시민의 승리”

“오늘의 쾌거는 30만 위대한 여수 시민의 승리입니다”

지난 5월13일 뒤늦게 무소속으로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해 20일 만에 당선된 김충석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을 여수시민에게 돌렸다.

출마 선언 당시 현 시장의 민주당 오현섭 후보와의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는 무려 35% P에 달했으나, 정작 선거에서는 오 후보를 3000표 차로 따돌려 이번 6·2지방선거의 최대 이변을 일으켰다.

여수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도위원의 수가 40명에 달해 애초부터 김 당선자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민심은 오 후보의 4년 시정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김 당선자의 승리를 가져온 최대의 공은 국민참여당 강용주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였다.



7%의 지지를 받았던 강 후보와의 단일화는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열린우리계가 가세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위치추적기’ 사건 자해소동 허남석 곡성군수

“결백 믿어준 군민에 평생 헌신”

“저를 믿어준 군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며 그동안 가꿔온 고향 발전의 꿈을 마음껏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 이번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일으킨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무소속 허남석 당선자는 눈물로 영광을 꽃다발을 안았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조형래 현 군수의 벽을 넘은 것이다.

성공한 경찰 출신인 허 당선자는 지난 2008년 곡성경찰서장으로 오면서부터 이미 이번 선거 출마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준비가 충분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존 정치권의 높은 장벽이 있었다.

이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무소속의 길을 택했다. 거침없는 도전이었으나 시련은 컸다.

상대 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건으로 친동생과 측근이 구속된 것,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해를 하기도 했다. 다행히 경찰은 위치추적기 사건과 그가 무관함을 인정했고 군민은 그에게 신뢰와 동정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곡성 사진=위지량기자 jrwi@

‘3선’ 연임후 1번 쉬고 ‘4선’ 성공

민주당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자

광주일고를 거쳐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민주당 고재득(64)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자가 4선 기초자치단체장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1995년 첫 민선 구청장으로 뽑혀 3번 연속 당선된 뒤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2006년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지 않았던 고 당선자는 이번에 통산 4번째 기초단체장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지자체장은 4번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3번 연임 후 1회 이상 출마하지 않으면 재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 당선자는 현 성동구청장인



한나라당 이호조 후보(65)를 9200여표 차이로 따돌렸다. 고 당선자는 애초 정치 활동 공백이 긴

기간이 짧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2년 동안의 구청장 임기 동안 원만한 행정을 폈다는 주민들의 평가에 힘입어 어렵지 않게 당선 고지에 올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구의원 문근호·보성군의원 진은순 후보

0.1% P차로 선거비 못돌려 받아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득표율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다시 한번 울고 웃는 상황을 맞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7억 원이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1억3900만~2억3900만원, 기초의원원은 4200만~5000만원.

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은 제한액이 14억20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은 1억1500만~1억9600만원, 교육의원은 1억4400만~3억2200만원, 기타도 의원과 군의원은 4700만~1억5100만원에 이른다.

10%의 득표율을 넘기지 못한 민주당 장원섭 후보와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 평화민주당 조홍규 후보 등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는 득표율이 7.39%에 그쳐 선거비용

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광주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문근호 후보와 보성군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진은순 후보는 9.9%를 얻어 0.1%포인트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영광군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선 무소속 박영용 후보는 10.1%(1379표)를 기록, ‘마지노선’에서 15표를 더 얻어 가까스로 50%를 보전받게 됐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오는 14일까지이며, 선관위는 각 후보들이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정당하게 선거비용이 지출됐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오는 8월1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IPALG 트라이슈어 단열복합시트 망수시스템

1. 열차단 에너지 절약 (에너지비용 절감) 2. 방음효과 (차량소음 차단) 3. 방수효과 (수분 차단) 4. 단열효과 (에너지 절약) 5. 방충효과 (벌레 차단) 6. 방진효과 (먼지 차단) 7. 방열효과 (에너지 절약) 8. 방습효과 (습기 차단) 9. 방염효과 (불에 타지 않음) 10. 방화효과 (불에 타지 않음) 11. 방독효과 (독기 차단) 12. 방미효과 (미생물 차단) 13. 방곰효과 (곰팡이 차단) 14. 방곰효과 (곰팡이 차단) 15. 방곰효과 (곰팡이 차단)

문의: 5-11-0444, 010-6603-0405

장숙바다장어

장숙바다장어 전문점

062-383-1110